

“한국 재가불자 신행 체계 전면개편 필요”

불광사 불광연구원 창립 41주년 ‘재가 신행론’ 학술연찬회서

의 신행체계를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불교의 상황에 맞는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광사 불광연구원은 10월 7일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 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황순일·고영섭·양승규·김진무·조성택 등 학자들이 불교의 시대별 재가자 수행에 대해 현재 불교계의 세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순 정리)

최근 한국불교계는 남방불교와 티베트불교, 서양불교까지 유입돼 있는 다불교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불교전통의 신행체계를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불교의 상황에 맞는 재가불자들의 신행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광사 불광연구원은 10월 7일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 에서 창립 41주년 기념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황순일·고영섭·양승규·김진무·조성택 등 학자들이 불교의 시대별 재가자 수행에 대해 현재 불교계의 세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순 정리)

“초기불교=남방불교 인식 바꿔야”

-황순일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최근 한국불교계에 불교 있는 남방불교 수행 우선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황 교수는 “초기불교 재가자의 신행”에서 “우리들은 오래 전부터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구분해왔다. 특히 남방불교의 경우 초기불교가 큰 변화 없이 그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인도에서 있었던 초기불교와 현재의 남방불교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장소와 시대를 달리하며 발전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히 초기불교의 <웨산따라 자따까>에 대한 당시 재가자들의 신행활동을 예로 들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당시 재가자들은 <웨산따라 자따까>를 하루 종일 낭송 또는 합

송하는 것을 듣고 끊임없는 보시행을 하여 공덕을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재가자들은 그리하여 미래의 붓다인 마이트라야(Maitreya)가 세상에 나올때 인간으로 태어나 마이트라야의 면전에서 출가하여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겼다.

황 교수는 “남방불교 재가자들의 신행과 정토사상의 신행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국민 64% “국보 1호 훈민정음 더 낫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보 1호로 승례문보다 훈민정음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우리문화지킴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월 5~6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4.2%가 “승례문과 훈민정음 중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훈민정음 대신 승례문을 꼽은 사람은 20%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70.7%)와 50대(70.5%)가 훈민정음을 택한 비율이 높았고, 19~29세(57.4%)와 60세 이상(55.8%)은 낮았다.

국보와 보물 같은 국가 지정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문화재 지정번호제에 대해서는 57.4%가 “폐지에 찬성한다”, 25.9%가 “폐지에 반대하다”고 답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우리문화지킴이,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와 함께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와 훈민정음의 국보 1호 지정을 촉구하는 정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사부대중의 대승불교 구성의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대승경전을 통해 본 재가불자 신행론”에서 “재가불자의 신행론은 삼귀의와 오계, 팔계와 십선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며 “현재 불교계에서의 출가자 외호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대승불교는 교화와 각행(修行)까지 원만히 갖추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출가와 재가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발달했다. 특히 유마거사의 불이법문과 승만부인의 10대수와 3대원을 아우르는 일대원을 통해 일승의 수승함과 중생이 지닌 여래장의 본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특히 ‘보살’의 개념이 사부대중을 넘어 수행자라는 개념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출가자는 ‘수행’과 ‘교화’, 재가자는 ‘생업’과 ‘수행’에 집중하

며 모두 수행을 하는 입장에 있다. 대승불교는 ‘승속양행’ 즉,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을 겸행하고 그 위치를 자재하여 하나라는 입장으로 제시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현대 재가불자들에게 유마의 불이와 승만의 일원은 신행이론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화엄의 10바라밀은 재가보살의 회향 실천법이자 수행법으로 자리한다”고 말했다.

“재가중심 대승정신 되살려야”

-고영섭



양 연구원은 “도차제의 의도는 큰 사람의 도차제를 통해 작은 사람과 중간 사람의 도차제를 성취해 결국 큰 사람의 도차제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대사회에서 일체지를 증득하는 목표가 처음부터 설득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예비수행에서 설명하는 기회와 원만한 조건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행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티베트불교 도차제, 한국불교서 유용”

-양승규



양승규 티베트대장경영역원 전임연구원원은 “도차제의 가르침과 재가신행체계” 발표에서 티베트불교에서 재가자의 근간에 따라 수행방식을 달리한 도차제가 한국불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베트불교의 보리도차제에서는 일시적인 훌륭한 몸을 증득하는 작은사람, 윤회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해탈을 증득하는 중간사람, 일체지를 증득하는 큰사람으로 나

는다. 양 연구원은 “도차제는 근간에 따라 구분하지만 출·재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 체계에서는 재가자도 불교교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도차제에서는 특히 관찰행을 할 것을 밝히는데 이는 관찰하는 지혜로 분석해 수행한다는 것으로 재가자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불교의 거사는 부패척결 원동력”

-김진무



크고 작은 것들이 있다. 결국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은 모두 깨달음이 라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은 시작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광덕 스님이 시작한 불광운동은 한편으로 부처님 이래 전통을 계승하면서 21세기 한국에 적절한 새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진무 절강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객좌교수는 중국에서 선종 유행한 계기가 통치의 효용성이라는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불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거사들이 활동했음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현대 불교계에 있어 재가불자의 활동과 역할이 보다 확장되어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선종에 있어서 재가불자

역할과 그 의의”에서 “거사들의 역할은 크게 호법, 재시, 새 교의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선종에 있어 고관료 거사들의 선택이 두드러진다”며 “안사의 난” 이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불교의 구대에 식상한 수많은 고관들이 우두선에 귀의했다. 회창법란이 오히려 우두선에 매료된 거사들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김진무 교수는 특히 회창법란 당시 승상의 지위에 있었던 이덕규의 역할이 불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혹했음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들의 눈에는 기존불교가 ‘부처를 팔아 사람을 현혹시키는 무리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며 “화엄과 천태, 도교 등 당시 최고 전성기를 이루던 사상에 대한 반성을 현재 재가불자들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만해연구, 심우장 꽃밭 복원 기념식

동국대 만해연구소(소장 고재석)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15 만해축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만해와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만행(萬行)’을 개최한다.

먼저 만해연구소는 10월 16일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1부 행사인 ‘심우장 꽃밭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승희 국회의원 등 50여 관련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재석 만

해 스님이 심우장의 작은 꽃밭에서 꽃들을 키우면서 ‘만유의 이법’을 묻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을 보듬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만해 스님이 평생 추구했던 깨달음의 꽃향기를 마음껏 맡고 그가 남긴 투쟁한 유산을 내면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와 함께 만해연구소는 2부 행사로 17일 ‘백담사 순례와 문화강연’을 만해마을에서 개최한다. 오전에는 학생들과 교수 및 각계 인사들 100여 명이 모여 단풍으로 물든 백담사까지 순례하면서 만해의 사상과 문학을 음미하고, 오후에는 문학강연을 듣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반야학술상 공모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제5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논문상과 저역상 두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저역상 분야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한다. 저자

및 역자 중 1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 논문상 분야는 2년 안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술지 <동아시아불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해 우수 논문 저자 1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및 추천 마감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노덕현 기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실�크로드’ 강좌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인문학 강좌 ‘대륙과 해양의 실�크로드 여행’을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한다. 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심화 강좌 프로그램이다.

화 교류 △실�크로드의 불교미술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와 해양 실�크로드 △동서문명의 교류-실�크로드와 유목제국 △몽골 제국과 동서문화 교류 △실�크로드를 통한 복식문화 교류 △정화의 남해대원정 △실�크로드의 거점, 고군산군도로 진행된다.

주요 강좌 일정은 △실�크로드와 동서문

노덕현 기자

제3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제주 묘엄 명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5년 10월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 (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되어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수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 510-2076 / 팩스 051) 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 david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5년 12월 28일, 제주 묘엄 스님 추모 다례제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신별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증릉

◆ 공연 내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불송·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 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mudo.com